

인도 자동차산업, 중장기 성장 전망

1. 자동차산업 현황

□ 금리 인상 및 유가 상승에 따라 승용차 판매 증가율 둔화

-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이 식료품 및 연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해 2010년 3월 이후 12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승용차 구입비용이 상승하여 판매량이 2011년 4~9월 중 1.84% 증가에 그침.
- 이는 상용차의 18% 증가에 비해 매우 작은 수치인데, 승용차 구매자의 약 80%가 금융대출을 이용함에 따라 최근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승용차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임.
- 10%에 가까운 물가상승률과 인도 정부의 휘발유 보조금 폐지로 인한 차량 유지비 부담 가중 또한 판매 증가율 둔화의 원인임.

<표 1> 자동차 생산, 판매 및 수출 추이

(단위: 천 대)

구 분		2008/09	2009/10	2010/11	2011/12 ^f	2012/13 ^f	2013/14 ^f
승용차	생산	1,838	2,351	2,987	3,347	3,701	4,090
	판매	1,553	1,950	2,520	2,571	2,805	3,063
상용차	생산	417	567	753	866	935	1,066
	판매	384	532	676	778	878	990

자료: 인도자동차제조사협회(SIAM).

□ 경유에 대한 보조금 지속 여부가 상용차 부문에 영향

- 2010년 6월 인도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휘발유 보조금을 폐지하였을 때 경유 보조금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유지됨에 따라, 경유를 많이 이용하는 상용차의 판매량 증가폭이 승용차보다 크게 나타남.
- 연료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 따라 휘발유에 이어 경유까지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물가 상승폭이 지나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에 따른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향후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11/12년 상용차 생산 및 판매 증가율은 전 회계연도 대비 약 1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폐지가 예상되어 이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자동차산업 확대 노력

- 인도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전략(2006~2016)¹⁾을 통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GDP 대비 규모를 10%까지 확대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 R&D 인프라 확대 및 자동차 특별경제구역(SEZ)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11년 예산안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였고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함.
- 이에 따라 기존에는 델리(Delhi)와 푸네(Pune)가 주요 생산기지였으나, 주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과 항구로의 용이한 접근성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첸나이가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현지 투자 진출 확대

-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 인도로의 완제품 수출이 어려움에 따라 주요 자동차 생산회사들이 인도에 진출하여 현지 생산을 통한 인도 시장에서의 기반 강화 및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1) 자동차산업 발전전략(Automotive Mission Plan: AMP)은 자국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환경 친화적 기술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여 자동차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2006년 인도 정부와 자동차 개발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이 세운 중장기 계획임.

- 일본의 마루티 스즈키가 인도 승용차 시장의 52%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도 2010년도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등 시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M&M)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계기로 한국에서 제조한 반조립 제품을 인도 현지에서 완성한 후 인도 시장에서 판매할 계획임.

2. 향후 전망

□ 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등에 따라 자동차 산업 성장 전망

- 인도는 자동차 생산 및 소비 증가율이 높은 편이나, 도시와 지방간에 격차가 크고 교통망 등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점 등이 자동차 보급률 및 산업 규모 확대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1년 말에는 인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의 마네사르 공장 근로자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어 4억 달러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음.
- 그러나 저렴한 경차의 생산 및 판매가 확대되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도로 및 도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세가 전망됨.
-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디젤 차량 및 상용차량 판매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인도 자동차 산업의 2012년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함.
- 정부의 자동차 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 및 저가 차량에 대한 R&D 센터 건립 확대로 초저가 차량의 생산 및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인도가 소형자동차 생산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조사역 이순재 (☎02-3779-5705)

E-mail : soonjaelee@koreaexim.go.kr